

“공동화 건물활성화 특별법’ 도심 살릴 것”
무소속 노관규, 공약 발표



전 남
천 · 광양 · 곡
성 · 구례갑
무소속 노관
규 후보가 도
심 공동화 현
상을 빚고 있
는 유휴건축물을 활용하기 위
한 법안으로 공동화건물활성
화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
약을 발표했다.

노 후보가 추진하려는 ‘공동화 건물활성화 특별법’은, 도심 공동화 건물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도심 건물 공동화 현상은 현재 순천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있는데다, 인구가 많은 대구 경북에 더욱 집중되어 있어, 영호남 상생 정책을 위한 법안 마련 차원에서도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노 후보가 추진하려는 ‘공동화건물활성화특별법’에 의해 순천 조은프라자 건물이 살아날 경우,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향뜰 공영개발과 맞물려 연향원, 조례원, 금당원 등 3권역의 도심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자연스럽게 청소년들끼리 유입되면서 동부권 청소년문화시설로 탈바꿈되며, 순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돋는 생활 유휴공간

으로서 그 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관규 후보는 “도심 공동화 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생사업의 확실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동화 건물을 행정이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전국에 죽어있는 수많은 복합 상가들에 대한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생사업에도 큰 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민감한 건 네가, 유리한 건 내가”

정치권 ‘0기주의 공약’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시 적극 전남도는 미온
전남에 의대 유치 놓고 동·서부 “내가하겠다”

4·15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핵심 과제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후보마다 지역 이기주의에 내몰려 불리한 공약은 떠넘기고 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서로하겠다는 별생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발간한 정책공약집을 통해 중앙 정책공약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별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군 공항 이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광주정신’ 현범 전문 수록 추진 △‘광주형 일자리’로 노사상생도시 실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기간 연장 등이 5대 공약으로 선정됐다.

전남은 △2022년까지 한전공대 개교·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내 의과대학 설립 추진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 실현 등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공약 대부분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들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차별화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광

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지난달 25일 호남권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진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의 각각의 보도자료를 보면 양 차지 단체 간 시각차가 극명했다.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반면, 전남도는 ‘4 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 사업을 강조할 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맨 마지막 문장에 간략히 언급했을 뿐이다.

급기야 민주당은 전남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놓고서도 내분에 휩싸였다.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가 의대 유치를 놓고 해묵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총선 후보들도 저마다 자기 지역 유치를 강조해 논란이 가열됐다.

지난 29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이낙연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동남권 후보 공동정책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과 권리옹호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를 포함한 5개 항의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전남 지역 후보가 모두 함께 참석하면서 목포지역구의 김원이 후보가 타 후보들의 공격을 받았다.

급기야 민주당 전남도당은 “민주당과 전남도당은 전남 동부권에 의대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없다”며 “동부권 의대설립 유치는 동부권 후보 4인의 정책협약에 포함된 내용일 뿐, 동부권과 서부권 후보들은 각자 의대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원이 민주당 후보도 “동부권 의대유치를 중앙당과 협의해 발표했다는 것은 민주당 동부권 후보들의 공약일 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제 본선 후보보물에도 목포대 의대 유치 공약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소병철 후보는 다음날 다시 “전남 동남권 의대 설립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의대 유치를 놓고 협의가 안 돼 같은 당 후보들 간 싸우는 모습이 연출됐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광주전남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저마다 지역현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선거가 끝나면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긴 안목을 갖고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호 기자

4·15경선지를 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북구을 후보자. (왼쪽 위부터)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경환 민생당, 황순영 정의당, 윤민호 민중당, (왼쪽 아래부터) 이재욱 국가혁명당, 강휘중 기독자유통일당, 노남수 무소속, 김원갑 무소속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盧 비서관’ 이형석 vs ‘DJ 비서관’ 최경환

광주 북구을, 8명 후보등록 격전 예고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광주 북구을 선거구는 총 8명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최경환 민생당 후보의 20대 총선에 이은 리턴 매치에 주목하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두 후보의 대결에서 최경환 후보가 금배지를 달았다.

최경환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68.6%의 투표율을 기록, 44.14%의 지지를 얻은 이형석 후보를 눌렀었다.

당시 최경환 후보는 국민의당 녹색바람과 함께 ‘DJ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로 지역 민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광주광역시 행정관과 공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김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비서관까지 지냈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에다 북구을 선거구가 민생당 조직이 가장 텐트하게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환 후보의 재선 도전에 가장 큰 도전자는 민주당의 이형석 후보다.

이형석 후보는 8대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을 지냈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4년 6

월까지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탄생을 위해 광주에서 앞장서기도 했다.

지역 기반도 텐트하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20대 총선에서도 접전을 펼쳤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두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자자율이 지역에서 상당으로 높지만 20대 총선 당시 녹색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갈리겼다가 다시 합친 만큼 과급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온 잡음으로 이번 선거 판세를 안갯속으로 빼뜨린 상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 북구을의 경우 두 비서관의 리턴 매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모두 텐트한 지역 기반 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다른 후보들도 지역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 2명과 함께 광주 북구에는 황순영 정의당 후보(54), 윤민호 민중당 후보(49), 이재욱 국가혁명당 후보(55), 강휘중 기독자유통일당 후보(37), 노남수 무소속 후보(50)와 김원갑 무소속 후보(59)도 출마했다.

김윤호 기자

여수갑지역위 “이용주, 더 이상 민주당 팔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지역 위원회가 무소속 이용주 후보를 향해 “더 이상 민주당을 팔지 말라”고 촉구했다.

여수갑지역위원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여수갑지역 당원들은 민주당을 편당하고 당적을 세 번이나 옮겼던 철새정치인 이용주 후보의 민주당 복당을 절대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위는 “이 후보는 4년 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배신·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다시 민주평

회당으로 갔다가 탈당하는 등 3차례나 당적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총선 흥보물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정세균 총리, 이낙연 전 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담으며 흥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면서 “당선 후 민주당 입장”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사실을 뼈에 알면서도 민주당 지지표를 가로채기 위한 추잡한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스 222-5547

